은해사, 꿈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매김

육군3사관학교 생도 템플스테이, 인성 · 리더십 함양 교육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육군3사관학교(교장 배현국, 소장)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신라화랑도 정신을 계승하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4월 20일 경내 육화원에서 4개 조로 편성된 육군3사관학교 3학년생도 2조를 대상으로 진행된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 입재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연수국장 혜석 스님, 생도대장 남진오 준장, 3사관학교 생도여단 3훈육대장 안운기 소령을 비롯한 120여 명의 생도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사학 교수 박영진 대위는 '화랑정신과 생도의 정체성'을 주제로 '6세기 화랑이 21세기 생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화랑도의 정신은 시대를 관통하는 민족정신 미래 장교로서 생도정신 군 핵심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생도대장 남진오 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해사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가 생도 여러분에게 꿈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즐겁게 보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육군3사관학교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로 생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준 은해사에 감사를 전하며, 은해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혜석스님과 이지선 템플스테이팀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소회를 밝히며 "43일 동안 묵언수행을 하며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스님들과 함께한 것"이라며 "묵언수행으로 한계를 극복한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함께 했던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동료와 보듬고 이해하는 전우애를 발휘하여 함께하는 소중함을 알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은 4개 조로 나뉘어 4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1박 2일간 다도 및 차 명상, 동기간 소통 공감의 시간, 화랑 수련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편 은해사는 육군3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장교로서의 올바른 인성과 품성 그리고 리더십을 배양하고, 올바른 군인정신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창간40주년 일붕신문, 제5대 총재 월인 스님 추대

4월 26일, 창간 40주년 기념식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 증명

"불교 화합, 전법 포교로" 법문

월인 스님 "불법 홍포 박차" 강조

300여 불자 참석해 함께 발원



총재로 추대된 월인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추대장을 받고 있다.

1983년 창간된 일붕신문이 창간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5대 총재로 화산 월인 스님을 추대했다. 일붕신문사(발행인 서병열)는 4월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간 40주년 기념식 및 제5 총재 추대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증명법사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이 참석했으며, 월인 스님을 비롯하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총재 무해 동봉 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청봉 스님,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해가 정림 스님,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한화갑 前민주당 대표, 남영진 KBS 이사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재로 추대된 월인 스님은 "일붕신문이 오늘날까지 40년간 꾸준히 발행되어 온 것은 일붕문도회 문도들의 경영에 대한 지도력과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국 1만여 일붕문도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더욱 더 애독해주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해달라. 훗날까지 일붕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법홍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의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중흥하고 발전하려면 종파를 초월해 범불교 화합의 정신으로 전법 포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의현 스님은 "한국불교는 불자 수 감소와 출가자 감소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불교의 생명은 전법륜에 있다. 우리 사부대중은 한사람 한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은 개회와 삼귀의례, 국민의례와 흥천사육법공양단의 육법공양,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의 인사말에 이어 화산 월인 스님 총재 추대취임식, 동봉 스님의 대회사, 청봉 스님의 집행사, 정림 스님의 봉행사, 청법게송, 의현 스님의 법어, 각계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은 "5대 총재로 취임하신 월인 스님은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을 맡으며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훈련장병에게 수계법회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고 추대의미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위한 자료 기증 동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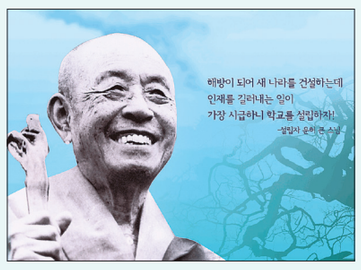
광동학원 법인 사무국으로

저서, 유품, 영상 자료 등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자료관에 전시될 자료를 기증할 동참자를 찾는다.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대강백이며 구국의 영웅,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운허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운허 스님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교육자다.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했다.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광동학원이 주도한다. 기증 자료는 운허 스님 관련 저서 및 글, 유품, 사진 및 영상자료, 학교법인



광동학원 관련 저서와 글 등이며 광동학원 법인 사무국(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진위원장이자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은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운허 스님의 교육 입국 정신을 계승하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불교 종립학교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운허 스님의 교육과 전법의 위대한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자료관에 전시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031)570-6611

임은호 기자

김해 동림선원 개원 5주년 기념법회

4월 22일 3층 대법당서…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22일 동림선원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된 개원 5주년 기념법회는 헌공불공에 이어 범종5타, 육법공양,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동림불모중창단), 연혁보고, 영상시청, 주지스님인사말, 내빈소개, 은암장학회 장학금전달식, 음성공양,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이날 개원법회에서 동림선원 신공스님은 지역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김해지역의 동국대학교 재학생을 위해 미래불자육성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해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앞으로 문화원을 건립하고 템플스테이관도 만들어 이 시대에 맞는 행복도량, 문화 도량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은암문화재단과 김해시청의 공지를 거쳐 선발된 박고경(인제대학교 식품영양 · 식품공학부), 박형준(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 1백만원이 전달됐다. 동림선원은 추후 김해지역 출신 중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미래육성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개원한 동림선원은 1차 천일기도를 회향했으며 7월 2차 천일기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개금불사 점안법회 봉행

4월 22일 대웅전 본존불 · 각황전 약사불 점안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가 대웅전 본존불과 각황전 약사여래불 개금불사를 회향했다.〈사진〉

선암사는 4월 22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선암사 방장 지암스님,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무원장 당선자 상진스님을 비롯해 태고종단의 중요 직책 스님들과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선암사 대웅전 본존불은 높이가 233cm인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1823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고 이듬해 다시 중창되면서 조성됐다.

각황전 약사여래좌상은 전체 높이 140cm로 조성 시기는 고려 초기로 추정되며 고려 초기 순천지역에 선종이 전파됐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방장 지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암사 대웅전과 각황전의 본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는 날"이라며 "이제 우리는 오롯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다시금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주권회복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근 선암사 토지 등기 이전과 관련한 법적 주권이 회복됐음을 선언했다.

이날 선암사는 순천시를 통해 취약계층에 쌀 10톤(3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선운교육문화회관 광장 대형 봉축탑 불 밝혀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고창지역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과 가로연등을 설치하고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5일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점등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선운사합창단의 음성공양,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은 일제 강점기 오쿠라 재단에서 무단 방출한 이천오층석탑을 모델로 제작됐다. 고창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라는 올 봉축주제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이날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종회의원 재안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심덕섭 고창군수 내외,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선운사와 고창 지역 불교계는 봉축장엄등을 점등하며 고창군민과 전북도민, 모든 국민이 밝은 미래로 나가는 희망의 등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천불교연합회, 봉축점등식 봉행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성본)는 4월 24일 영천역 광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영천불교연합회장 성본 스님, 군위사암연합회장 호암 스님, 경산사암연합회장 성담 스님,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본 스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영천시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비추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무한하기를 축원 드린다고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영천시가 화합과 번영의 길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서원한다"고 했다.

조계종 제10교구장 덕조 스님은 "아집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관용의 정신이며, 이는 불교의 측은지심과 상통한다. 노력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할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49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선대조사 다례재 봉행

부안 내소사가 근대 호남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해안 대종사 49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26일 해안대종사 열반 49주기를 맞아 조계종 원로의원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산장 동희 스님,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을 비롯한 국장스님들과 해안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부도전에서 열린 역대조사 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입정,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문도를 대표한 동명 스님은 "지난 2월 은사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인도순례를 다녀왔다.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원로의원에 추대됐지만 이 또한 스승의 은혜이다" 며 "열반하는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않았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고 말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스님께 감사드린다" 며 "늘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봄 재즈콘서트 개최

사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눈길

힐링과 문화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가 재즈연주가 윱 반라인을 (Joep van Rhijn)을 초청해 재즈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봄이 한창인 4월 22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 보재루에서 진행한 이날 음악회는 윱 반라인의 자작곡 'Walking The dog'를 비롯해 10여 곡의 음악이 연주돼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은사는 아름다운 문화재와 경관을 갖고있는 힐링과 문화의 고찰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보제루의 목조건물에서 영혼을 울리는 음악소리를 들어면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즐겼으면 한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음악회에는 트럼프 연주가 윱 반라인을 비롯해 피아노 전용준, 드럼 김영진, 콘트라베이스 송인섭 등 예술인들이 참여해 객석을 매운 관중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연주가 윱 반라인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세미 어쿠스틱으로 준비된 오늘의 무대는 천은사를 공연과 음악 감상을 위한 완벽한 장소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은 대부분 저의 자작곡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평소 즐겨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를 더해 보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